



지크, 이크! 첫 승 또 불발

13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지크가 투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선발 6이닝 2실점 호투
SK 김광현에 막혀 영봉패
대진운 등 불운 겹쳐 시즌 3패

LG를 막지 못한 KIA는 4-8로 경기를 끝냈고, 지크의 두 번째 패가 남았다. 세 번째 등판이자,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도 지크는 대진운이 좋지 못했다. '괴물' 김광현이 상대 투수로 나서면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다. 결과로만 보면 1회가 승부처였다.

1회 KIA의 선두타자 김주찬이 김광현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뽑아내면서 출루에 성공했다. 2번 타자 김민우의 연속 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그러나 전날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줬던 김주찬이 병살타를 때리면서 분위기가 식었다. 끝까지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김광현이 한숨을 돌렸다.

지크도 험난한 1회를 보냈다. 지크는 1사에서 조동화에게 최정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정의운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위기를 넘긴 김광현이 거침없는 피칭을 이어갔다. 3회 이성우, 6회 노수광을 선두

타자 안타로 내보냈지만 2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7회 다시 등판한 김광현은 2사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위기를 맞았지만 3루수 앞 땅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7이닝 4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완투였다.

지크는 김광현보다 먼저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0-1로 뒤진 6회 고메즈에게 중앙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한 지크는 6이닝 2실점을 남기고 임기준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KIA는 9회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2사에서 필이 볼넷을 골라낸 뒤, 이범호가 우익선상으로 공을 보내면서 2·3루를 만들었다. KIA가 한방있는 이흥구를 대타로 내세웠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0-2, KIA의 패로 끝났다.

한편 14일에는 KIA 양현종과 SK 메릴 켈리가 '시즌 첫 승'을 놓고 마운드 맞대결을 벌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신입 외국인 선수' 지크의 첫 승 신고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0-2 영봉패를 기록했다. 지크는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6탈삼진 2실점의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SK의 '괴물' 김광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시즌 3패째를 안았다. 지난 1일 NC와의 개막전에서 불펜의 깜짝 카드로 한국 데뷔전을 치른 지크는 이날 손시현의 결승타에 첫 패배를 안았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한국 무대 경험이 풍부한 소사(L.G)라는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났다. 소사의 우위가 점쳐졌던 경기였지만 예상과 달리 지크가 초반 싸움에서 소사를 압도했다. 몸에 풀린 지크가 3·4·5회를 삼자범퇴로 장식했지만 소사는 4회 김주형-김주찬-필의 연속 2루타에 흔들리면서 3실점을 했다. 3-0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지크가 6회를 넘기지 못했다. 좌익수 나지완의 실책성 플레이에 흔들린 지크가 5회 1사에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삼동삼이 투입됐지만 점수는 3-5까지 벌어졌다. 기세 오른

슈틸리케의 경고



"6개월 이상 못 댄 해외파 대표 선발 어려워"

울리 슈틸리케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13일 "6개월 이상 못 댄 해외파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하기 힘들다"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해당 범주에 포함된 선수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월 이상 벤치를 지키고 있는 국가대표급 해외파 선수는 없다. 다만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전까지 예측하면, 범주에 속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나온다.

수비수 박주호(도르트문트)와 김진수(호펜하임)가 이에 속한다.

박주호는 1월 24일 보루시아전, 김진수는 2월 1일 바이에른 뮌헨전을 마지막으로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최종예선은 9월 1일(중국전)에 시작한다. 만약 7~8월까지 박주호, 김진수가 이적 등을 통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월드컵 최종예선에 승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정용(크리스탈 팰리스)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위험하다. 이정용은 2월 14일 왓퍼드전에 출전한 뒤 2개월 동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동원은 2월 22

일 하노버전이 마지막 출전 기록이다.

다만 두 선수의 사정은 박주호, 김진수보다 다소 낫다. 지동원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다. 부상만 회복되면 다시 그라운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정용도 간혹 교체 멤버로 이름을 올리며 훈련을 하고 있다. 대표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 열린 레바논전을 마친 뒤 "이정용은 가끔 교체 선수로 경기를 준비해 몸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진수는 오래 쉬어서 그런지 몸 상태가 불안정했다"라며 직접 비교를 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슈틸리케 감독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는 박주호와 김진수로 예상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들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조 추첨을 주관한 뒤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헤트트릭...레알 UEFA 챔스 4강행

1, 2차전 합계 3-2 신승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혼자 세 골을 퍼부은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앞세워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볼프스부르크(독일)와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1차전 원정에서 0-2로 패해 이날 부활이 컸던 레알 마드리드는 1,2차전 합계 3-2로 힘겹게 승리하며 4강 티켓을 획득했다.

선제골은 전반 15분에 나왔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다니엘 카르바할이 올린 땅볼 크로스를 호날두가 쇄도하며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다. 전반 17분 호날두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번에는 헤딩슛으로 2-0을 만들면서 기세를 올렸다. 첫 골을 넣은 뒤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세 번째 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1,2차전 합계 점수에서도 앞서 가기 시작한 것은 후반 32분이었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호날두가 직접 차 올렸지만 대역전술을 완성했다.

아주 강하게 찬 프리킥은 아니었지만 절묘하게 수비벽 사이를 빠져나간 공은 골



키퍼 앞에서 한 차례 바운드 되면서 골문 안으로 향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6골을 터뜨린 호날두는 2013-2014시즌 자신이 기록한 한 시즌 최다 골 기록(17골)에 한 골 차에 다가섰다.

지네딘 지단(프랑스)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로 2010-2011시즌부터 6년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해 1, 2차전 합계 3-2로 이겼다. 4강 대진 추첨은 1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러 테니스협회장 "사라포바 리우올림픽 출전해야"

러시아 테니스협회장이 올해 1월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마리아 사라포바(러시아·사진)의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사실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장이 '우리는 여전히 사라포바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라포바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을 사용해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치료 목적으로 멜도니움을 10년간 써왔지만 이 약물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타르피슈체프 회장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자 대표팀에는 올림픽 메달 후보들이 여럿 있다"고 소개하며 "현재 스페트라 쿠즈네초바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사라포바 역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직 사라포바에 대한 징계는 정해진 것이 없다.

타르피슈체프 회장은 "아마 6월이나 7월 사라포바의 약물 사용에 대한 정문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멜도니움 사용에 대한 통상적인 징계는 자격 정지 1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4년 자격 정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선수의 단순 실수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한기주, 불박이 꿈꾼다

1462일만의 승리투수...시즌 완주 목표

1462일 만에 불려본 '승리투수'라는 이름이었다.

KIA 타이거즈 한기주는 지난 12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2012년 4월11일 삼성과의 경기 이후 4년 만에 기록된 승리였다.

이날 한기주는 선발 임준혁의 난조 속에 4-6으로 뒤진 3회2사에서 조기 투입됐다. 2사 1·2루에서 등판한 한기주는 첫 상대인 김성현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만루에 몰렸지만 김강민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김주형의 연타석 홈런으로 5-6으로 점수가 좁혀진 4회말, 한기주가 볼넷을 연달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유격수 라인드라이브에 스타트를 끊었던 2루 주자 조동화까지 아웃이 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정의운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한기주는 5회에는 탈삼진과 땅볼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유격수 실책으로 고메즈를 내보냈지만 도루 실패로 실점 없이 이닝을 종료했다.

한기주가 묵묵히 마운드를 지켜주자 야수들이 힘을 냈다. 6회 2점을 뽑아내면서 7-6으로 승부가 뒤집혔다.

승리투수 자격 요건을 갖춘 한기주가 6회 다시 마운드에 등장했다. 3루 땅볼과 삼진으로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진 한기주는 김광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주면서 3이닝 3탈삼진 3탈삼진 무실점을 기

록했다. 그리고 최영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경신하면서 한기주는 1462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한국 프로야구계의 '특별 선수'였던 그는 부상에 신음하며 '특별 관리 선수'가 됐다. 한기주는 지난 시즌 중반 3년 만에 1군 마운드를 밟았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없었다. 1군 마운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한 김기태 감독은 원복하게, 자신감 있게 다시 1군 마운드에 설 수 있도록 2군으로 한기주를 내렸다. 2016 시즌을 목표로 한기주 스스로 재활과 피칭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한기주는 스프링캠프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기대 만큼이나 걱정 속에 떠났던 캠프였다. 계속됐던 부상에 언제 부상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기주의 마음 한 곳을 무겁게 눌렀지만 캠프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더해졌고, 불안함은 줄었다. 허벅지 근육통으로 캠프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한기주는 꿈에 그리던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선발투수도 마무리도 그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마운드에 돌아왔다는 자체가 행복한 한기주였다. 1462일 만에 승리 투수의 기쁨을 누린 '아픈 손가락' 한기주가 시즌 완주를 목표로 다시 스파이더 크운을 조여냈다. /김여울기자 wool@

